

「淮南子」의 구성과 문제의식

金 容 燮*

《目 次》

I. 문제의 제기

IV. 「淮南子」의 구성과 문제의식

II. 「淮南子」의 시대적 배경

V. 연구방법론

III. 저작시기와 판본

參考文獻

I. 문제의 제기

「淮南子」¹⁾는 漢代 初期에 淮南王이었던 劉安(B. C. 179~B. C. 122)과 그의賓客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이다. 高誘가 지은 ‘淮南鴻烈解敍’에는 저술에 참여했던 학자들로 蘇飛·李尚·左吳·田由·雷被·毛被·伍被·普昌 등의 8인과 유가였던 大山·小山 등을 열거하고 있다.²⁾ 원래는 「內書」21편, 「外書」33편, 「中書」8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³⁾고 하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내서」21편 뿐이다. 각 장의 편명은 개별적인 주제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도가사상을 기초로 하여 유가·묵가·법가·음양가·병가·종횡가 등 先秦시대에 성립했던 거의 모든 학파의 사상을 종합하고 있다.

「회남자」는 저작자가 다수이고 제가의 사상이 절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체계의 규모가 방대하고 관심분야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또한 바로 그 점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저작자가 다수이므로 동일한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불일치가 생겨나며, 다양한 사상이 뒤섞임으로써 내용상의 모순과 상충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회남자가 동일한 일가의 사상에 대하여 상반된 비평을 가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가 있다.

회남자의 제가사상에 대한 상이한 언설은 회남자의 사상을 이해난측하게 만들고 철학체계 전반을 제가의 언행을 모은 잡록집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회남자 철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회남자는 유가사상에 대하여 “군자는 仁義에 맞지 않으면 삶을 취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

* 경산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

1) 淮南子는 본 논문에서 서명으로도 쓰이고 인명으로도 쓰인다. 서명을 나타낼 때는 「」표시를 하였고 인명을 나타낼 때는 아무런 표시도 붙이지 않았다. 특히 인명을 나타낼 경우에는 저작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던 유안과 그의賓客들, 또는 그들의 사상을 통괄하여 지칭하였다.

2) 周諤, ‘淮南鴻烈解敍’(「淮南子」, 漢文大系, 卷二十, 富山房刊, p. 2) 參照.

3) 班固가 지은 「漢書」의 기록을 따른 것이다. ‘淮南衡山濟北王傳’에 「內書」21편과 「中書」8편이 언급되고 있고, (班固, 「漢書」, 景仁文化社篇, p. 2144) ‘藝文志’에 「內書」21편, 「外書」33편이라고 언급되어 있기(班固, 같은 책 p. 1741)때문에 본문에서 종합적으로 「內書」21편, 「外書」33편, 「中書」8편이라고 명시하였다.

어 인의를 상실한다는 것은 바로 삶의 바탕을 잃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라고 하여 인의가 삶의 근본임을 강조하면서도, “예의가 생겨나고 재화가 귀하게 여겨지게 되자 사기와 기만 이 싹트게 되었다”⁵⁾라고 하여 예의를 도리어 타락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다시 “인의예악은 사람들이 부패한 것을 구제하고자 나온 것에 불과하며 모든 곳에 두루 통하는 지극한 통치는 아니다”⁶⁾라고 하여 인의예악을 이용한 통치가 이상적인 정치는 아니라고 말한다. 법가정치에 대하여도 “법은 천하의 표준이며 군주가 준거해야 하는 기준이다.”⁷⁾라고 하여 법을 중시·옹호하면서도, “(법가들은) 각박하고 혹독한 형벌을 가지고 도덕에 어긋나는 말단적 체형을 가하는데…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⁸⁾라고 하여 법의 집행에 부수되는 잔혹한 형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제가의 사상에 대한 이러한 비평들은 회남자 철학사상의 엄밀성·체계성·통일성을 의심하게 하고, 바로 그 때문에 다른 사상체계와는 달리, 당시와 그 이후의 시대에도 광범위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회남자는 제21장 ‘要略訓’ 가운데서 자신의 철학체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무릇 책을 저술하는 목적은 (절대적인 도에 입각한) 도덕을 확립하여 인간세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씀에 있어서 위로는 하늘에다 대고 고찰했고 아래로는 땅에다 대고 헤아렸으며, 중간으로는 모든 이치를 맞추어 통하게 하였다. 비록 형묘한 도의 깊은 핵심은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였으나 그런대로 많이 추리고 종합하였으므로 모든 事理의 시종본말을 살피고 알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⁹⁾

이러한 언명은 회남자가 자신의 철학사상을 적어도 수미일관한 체계로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회남자」에서의 각장의 편명이 본체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간론·학문론·수양론·처세론·경세론이라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데서도 그의 학문정신과 저작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회남자」의 철학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어떻게 「회남자」철학사상에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성과 문제의식에 대한 고찰이 주된 목표이지만, 이것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 저작시기와 판본, 연구방법론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4) 「淮南子」, 「繆稱訓」, 「君子非仁義無以生, 失仁義則失其所以生」參照.

5) 「淮南子」, 「齊俗訓」, 「及至禮義之生, 貨財之貴, 而詐僞萌興」參照.

6) 「淮南子」, 「本經訓」, 「仁義禮樂者, 可以救敗, 而非通治之至也」參照.

7) 「淮南子」, 「主術訓」, 「法者天下之度量, 而人主之準繩也」參照.

8) 「淮南子」, 「覽冥訓」, 「鑿五刑, 爲刻削, 乃背道德之本, 而爭於錐刀之末…是猶抱薪而救火, 鑿竇而出水」參照.

9) 「淮南子」, 「要略訓」, 「夫作爲書論者, 所以紀綱道德, 經緯人事, 上考之天, 中通諸理, 雖未能抽引玄妙之中, 才繁然, 足以觀始終矣」參照.

Ⅱ. 「淮南子」의 시대적 배경

「회남자」가 성립된 시기는 漢의 高祖(劉邦)가 나라를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였다. 앞선 秦나라는 군현제와 법가사상으로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절대화된 권력은 도리어 시황제의 죽음과 더불어 스스로를 파괴·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중국 전역은 또 다시 정란과 병화로 뒤덮이게 되었다.

고조는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된 후, 한편으로는 叔孫通으로 하여금 국가의 예악과 조정의 의례를 제정하게 하여 나라의 기강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현제의 모순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몇몇 지방을 제후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¹⁰⁾ 이러한 군현제와 봉건제의 동시 인정은 군현제가 빚어낸 폭정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던 일반인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 되었고 사회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여윌롭게 만들어 주었다.

학술적으로는 秦代의 여풍이 아직도 남아 있어¹¹⁾ 제가의 학설이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조가 비록 숙손통과 그 밖의 선비 30여명으로 하여금 유술로써 예악과 의례를 제정하게 하였지만, 학문 그 자체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더욱이 經學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유학도 큰 세력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 뒤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고조가 죽은 후에 등극한 惠帝는 성격이 너무 나약하여 고조의 황후였던 呂后가 섭정하게 되는데¹²⁾ 그 때 공신이었던 曹參이 승상이 되면서 평소에 신봉하던 노자의 정치술을 현실에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조참이 실행한 정치의 내용은 주로 번잡한 제도를 피하고 사역과 조세를 경감시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며 대외적으로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무위의 정치는 여후의 섭정기간인 15년 동안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개 秦나라가 비록 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도는 대단히 완비되어 있었으며, 통치계층이나 피지배계층 모두가 대화란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무위의 정치도 결국 도가사상으로 하여금 다른 사상들을 제압할 정도로 번성하게 만들지는 못하였다.¹³⁾ 秦代에 부과되었던 ‘禁挾書律’(서책을 소지하거나 보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과 ‘禁妖言令’(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등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던 규제조치도 惠帝의 시기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으나 정부와 민간 모두가 큰 규모의 연구에 종사할 정도의 정신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종합적으로 말한

10) 傅樂成, 「中國通史」, 辛勝夏譯, 宇鍾社, p. 140. 參照.

11) 武內義雄, 「中國思想史」, 李東熙譯, 驪江出版社, p. 130. 參照.

12) 傅樂成, 앞의 책, p. 144. 參照.

13) 이러한 이유는 대개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무위의 정치는 그 성격상 사회적 실행력 또는 현실대응력이 부족한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그 결과 뚜렷한 사회적인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면 한대 초기는 주도적인 사상이 아직도 등장하지 못하여 유가·도가·법가·묵가 등의 제가사상이 병존하고 동등한 세력을 유지하던 시기였다. 「회남자」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저자인 유안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철학사상을 구성하고자 한대에서 성립되었다.

이밖에도 저자인 유안의 개인적 동기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안의 아버지는 한 고조의 아들인 劉長이었다. 그는 고조가 東垣지방을 순무하다가 趙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조나라 왕이었던 張敖가 상납한 美女와 인연을 맺는 것을 계기로 하여 태어나게 되었다. 그는 여후의 손에서 자라게 되며, 나중에 이복형인 恒이 孝文帝로서 황제에 등극하게 되자, 황제를 ‘大兄’이라고 부르며 마치 자신도 황제가 된 것처럼 방자무도하게 행동하였다. 淮南王에 책봉되어서는 권술과 모략을 일삼고 천자를 참칭하였으며, 결국 역모죄에 연루되어 四川지방으로 귀양가던 도중에 단식하여 죽고 말았다. 큰 아들이었던 劉安은 아버지인 長의 뒤를 이어 회남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자신도 권력에 대한 야심과 포부를 버리지 못하고 모반을 계획하다가, 결국 역모의 사실이 밀고됨에 따라 자결하고 말았다. 司馬遷은 「史記列傳」에서 유안의 성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淮南王 安은 사람이 독서나 거문고 타기를 좋아하고, 병기를 다루거나 사냥 또는 말 달리기 등은 좋아하지 않았다. 또한 陰德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을 위무하여 그 聲譽를 천하에 퍼뜨리려고 하였다.”¹⁴⁾

유안이 「회남자」를 저술한 동기는 앞의 상황들이 설명해주듯이 아직도 통치이념과 국가조직이 정비되지 못하여 백성의 심리와 살림살이가 불안한 상황에서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권력과 명예에 대한 야심을 충족시키려고 한 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저작시기와 판본

「회남자」가 저술된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漢書」의 ‘淮南衡山濟北王傳’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들 수가 있다.

“회남왕 유안은 빈객들과 方術에 조예가 있는 선비 수천명을 불러들여 「內書」 21편을 지었는데, 「外書」도 매우 많았다. 또한 「中篇」 8편은 神仙黃白의 방술을 20여만자에 이른다. …처음에 유안이 조정에 들어가 「新書」를 바쳤는데 임금이 그것을 아껴 숨겨두었다”¹⁵⁾

14) 司馬遷, 「史記」, 卷118, 「淮南王安爲人好讀書鼓琴, 不喜狗馬馳騁」, 亦欲以行陰德拊循百姓, 流譽天下」(司馬遷, 「史記列傳」(下), 乙酉文化社, p.677) 參照.

15) 班固, 「漢書」, 景仁文化社篇, p.2144. (淮南王安…招致賓客方術之士數千人, 作爲內書二十一, 外書甚衆, 又有中篇八卷, 言神仙黃白術, 亦二十餘萬言, …初, 安入朝, 獻所作內篇, 新出, 上愛秘之) 參照.

위의 문장에서 ‘처음에 유안이 조정에 들어가 「新書」를 바쳤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아래를 보면 다시 “유안이 처음에 조정에 들어갈 때 太尉인 武安侯를 만났다”.¹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漢書」의 「武帝紀」에 의하면 무안후는 이름이 田蚡이며, 漢 武帝 建元 元年(B.C. 140)에 太尉가 되었다가 建元 2年(B.C. 139) 10월에 太尉職을 사임했다고 나타나 있다.¹⁷⁾ 유안이 조정에 들어와 「新書」를 바친 것은 전분이 태위의 직위에 있던 건원 원년이나 2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淮南子」가 저술된 시기는 대략 무제 이전의 景帝의 시기(B.C. 157~141)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안이 바친 「신서」에는 「내서」 21편은 포함되고 「外書」나 「中書」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재 전해지는 「회남자」가 「내서」와 마찬가지로 21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안이 「외서」와 「중서」를 같이 바쳤더라면 「내서」·「외서」·「중서」 모두가 전해지든가 전해지지 않든가 하지, 현재와 같이 「내서」만 전해지고 「외서」와 「중서」는 전해지지 않는 경우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회남자」의 註를 쓴 高誘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회남·내편」의 이름을 ‘鴻烈’이라 말하였다. “鴻이란 크다는 뜻이요, 렐이란 밝다는 뜻이다. 道를 크게 밝힌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나중에 劉向이 교정하고 撰具하여 淮南이라 이름지었다”.¹⁸⁾ 내용상으로 말한다면 「내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도가사상을 주로 하여 제가의 사상을 절충하여 논리화·체계화한 것이다. 반면에 없어져 버린 「외서」와 「중서」는 비교적 비논리적이고 미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顏師古는 「漢書」의 註에서 “內篇은 道를 논하였고 外篇은 雜說이다”.¹⁹⁾ 라고 말한 바 있고, 陶建國은 王充의 「論衡」 ‘道虛篇’과 葛洪의 「神仙傳」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외서」와 「중서」는 종교수련의 저작이라고 주장한다.²⁰⁾ 또한 徐復觀은 「兩漢思想史」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외서」와 「중서」는 유안이 「내서」 21편을 지어 정치적 이상을 완성하고 난 후 방술에 조예가 있는 선비들의 글을 모아서 「외서」와 「중서」를 펴낸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²¹⁾

「淮南子」에 관한 주석으로는 漢朝에 두개가 있었다. 하나는 高誘註이고 또 하나는 許慎註이다. 唐朝 이후로 許慎註는 유실되고 高誘註만 남았다. 현존하는 高誘註 역시 許慎註가 부분적으로 뒤섞인 것이다. 馮友蘭과 같은 사람은 近人의 고증에 근거하여 매편 제목 아래의 註解에 ‘因以題篇’(이것으로 이 편의 제목으로 삼았다)이라고 명시된 것은 高誘註이고 없는 것은 許慎註라고 판단할 수 있다²²⁾고 하였다. 예를 들면 ‘原道訓’의 註에서 “原은 근본이다.

16) 班固, 앞의 책, p. 2146, (「安初入朝, 雅善太尉武安侯」) 參照.

17) 班固, 앞의 책, p. 157, (「二年冬十月…丞相嬰, 太尉蚡免」) 參照.

18) 高誘, ‘淮南鴻烈解詁’, (漢文大系, 卷二十, 「淮南子」, 富山房, 1984, p. 3), 「鴻大也, 烈明也, 以爲大明道之言也…光祿大夫劉向, 校定撰具, 名之淮南」參照.

19) 班固, 앞의 책, p. 1742, (「內書論道, 外篇雜說」) 參照.

20) 陶建國, 「兩漢魏晉之道家思想」, 文律出版社, 1985, 參照.

21) 徐復觀, 「兩漢思想史」(卷2), 學生書局, 1984, p. 179, 參照.

22) 馮友蘭, 「中國哲學史料集」, 鄭仁在譯, 蜚雪出版社, 1985, p. 94. 參照.

본래적인 道는 참됨(眞)에 근거하여 천지를 싸서 만물을 길러 내므로 原道라 하였다. 이것으로 이 편의 제목으로 삼았다.”²³⁾라고 하는 것은 高誘의 註이며, ‘人間訓’에서 “인간의 일은 길흉 가운데 있다. 득실의 단서를 징험하여 存亡의 기틀을 반성한다. 그러므로 인간이라 하였다.”²⁴⁾라고 하는 것은 許慎의 註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풍우란은 「中國哲學史料集」에서 「회남자」에 대한 註解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²⁵⁾ ①「淮南鴻烈篇」－ 漢, 高誘註. ②「淮南集證」－ 劉家立撰, 中華書局本. ③「淮南鴻烈集解」－ 劉文典撰, 商務印書館本.

Ⅳ. 「淮南子」의 구성과 문제의식

「회남자」의 편명은 다양한 주제들을 표시해 주며, 그러한 주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본체론에서 경세론에 이르는 정연한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저작자들이 제가의 사상을 종합함에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을 중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작자들은 수양론·처세론·경세론 등에 관하여 언급할 경우에도 존재사물의 근본원리에 대한 탐구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방식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협소하고 편파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성립된 철학체계를 다시 역사적 사실로써 검증·확인함으로써 정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회남자 철학사상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은 다음의 문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유씨의 책인 「회남자」는 천지간의 모든 천문·기상 및 현상을 관찰하고 고금의 역사적 사실을 통달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평가·계량하여 그 원칙을 세웠고 또한 형세와 외형을 측도하여 적절하고 합당하게 서술한 책이다. 또한 도의 본 정신에 근원을 두고 삼왕의 덕치의 풍도에 맞게 썼으므로 초연하고 자유로운 정신과 사상을 담은 책이다. 또한 현묘한 도의 정신 속에서 인간적인 면려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였으며, 혼탁을 버리고 청정한 것을 취하여 천하를 하나인 도의 세계에 통일시켰다. 만물을 순서지우고 변화에 순응하여 협소하고 편협한 태도를 지양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 담긴 진리는...깊은 곳에 있지만 항상 막히지 아니하고 천하에 펼쳐 놓아도 두루 통하는 것이다”²⁶⁾

23) 「淮南子」, 「原道訓」, 「原本也, 本道根眞, 包裹天地, 以歷萬物, 故曰原道, 因以題篇」參照.

24) 「淮南子」, 「人間訓」, 「人間之事, 吉凶之中, 微得實之端, 反存亡之幾也, 故曰人間」參照.

25) 馮友蘭, 앞의 책, p. 94, 參照.

26) 「淮南子」, 「要略訓」, 「若劉氏之書, 觀天地之象, 通古今之事, 權事而立制, 度形而施宜, 原道之心, 合三王之風, 以儲與感治, 玄妙之中, 精靡覽, 棄其眇眇, 斟其淑靜, 以統天下, 理萬物, 應變化, 通殊類, ...故置之尋常而不塞, 布之天下而不窮」參照.

회남자 철학사상의 특징적인 면모가 이처럼 제가의 학설을 폭넓게 취합하고 절충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회남자 철학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즉 하나는 각 장이 일가의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각 장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각 장이 제가의 사상을 결합하여 편명이 표시해주는 주제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전자를 대표하는 경우로는 向井哲夫·金春峰·義内武雄 등의 학자들을 들 수가 있다. 向井哲夫의 경우는 「회남자」의 각 장의 사상적 근원을 대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²⁷⁾

※ 向井哲夫가 구분한 각 장에서의 중심사상

사상 성분	해 당 하 는 편 명
도 가	‘原道訓’ ‘倣眞訓’ ‘精神訓’ ‘齊俗訓’ ‘道應訓’ ‘汜論訓’ ‘詮言訓’ ‘要略訓’
음양오행가	‘天文訓’ ‘墜形訓’ ‘時則訓’ ‘覽冥訓’ ‘本經訓’
유 가	‘繆稱訓’ ‘泰族訓’
명 가	‘說山訓’ ‘說林訓’
목 가	‘修務訓’
법 가	‘主術訓’
병 가	‘兵略訓’
중 회 가	‘人間訓’

편명에 따른 이러한 구분방식은 회남자 철학의 성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사상이 뒤섞여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남자」 가운데는 각 장을 일가의 사상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성있게 조직하고자 하였다는 증거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수무훈’의 경우, 向井哲夫는 목가사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金春峰과 같은 사람은 「회남자」 가운데 유가사상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장으로 간주하고 있다.²⁸⁾ 金春峰은 그러한 예로써 “성인이란 자신의 몸이 없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가 행해지

27) 向井哲夫, 「淮南子」と墨家思想, 日本中國學報, 第三十一集, p. 54. 參照.

28) 金春峰, 「漢代思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p. 253. 參照.

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운명이 짧은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곤궁함을 근심한다”²⁹⁾ 라는 대목을 내세운다. 심지어 이것은 그 당시의 유가사상이 상당히 세력을 가지게 된 증거가 된다고 추측하기도 한다³⁰⁾ 필자는 위의 문장의 경우 유·묵 양가 가운데 어느 한쪽에 포함시키는 것은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유·묵 양가는 그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참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수무훈’을 유·묵 가운데 어느 편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경훈’의 경우도 向井哲夫는 음양오행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회남자」의 마지막 장인 ‘요락훈’은 ‘본경훈’의 대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本經이란 이것으로 위대한 성인의 덕을 밝히고 최초의 도를 통하여 堯世古今의 변화를 구분하여 先世의 융성을 들어 높이고 末世의 왜곡된 정치를 내려 깎기 위함이다. 또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耳目의 감동과 정신의 감동을 내던지게 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에 집착하지 않으며 養生의 和를 절제하고 帝王의 지조를 나누며 크고 작은 차이를 열거하는 것이다”³¹⁾

勞思光은 위의 문장의 의미를 대개 ‘고대의 태평스러웠던 시대를 동경하고 받드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老莊의 문화부정론을 발휘한 것’이라고 본다³²⁾ 이러한 해석이 정당하다면 ‘본경훈’은 음양오행가에 포함된다기 보다는 도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음양오행가는 우주만물의 근원과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는데 주력하는 반면에 도가는 우주자연의 본체에 대한 탐구를 근거로 하여 문화현상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는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요락훈’을 도가사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요락훈’은 「회남자」의 저술동기와 태도, 그리고 각 장의 대요를 밝힌 부분이므로 반드시 도가사상에만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向井哲夫는 회남자의 철학사상이 도가사상을 기저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를 요약·정리한 ‘요락훈’을 도가사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체사상에 도가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과 ‘요락훈’의 중심사상이 도가사상이라고 보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필자는 동일한 문장 가운데서도 상이한 사상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문장 또는 한 장을 어느 하나의 사상에다 편입시키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필자는 ‘요락훈’의 경우, 중심사상은 도가도 아니요, 유가·

29) 「淮南子」, 「修務訓」, 「聖人者, 不恥身之賤, 而愧道之不行, 不優命之短, 而優百姓之窮」參照.

30) 金春峰, 앞의 책, p. 254. 參照.

31) 「淮南子」, 「要略訓」, 「本經者, 所以明大聖之德, 通維初之道, 埒略衰世古今之變, 以衰先世之隆盛, 而貶末世之曲政也, 所以使聾耳目之聰明, 精神之感動, 樽流遁之觀, 節養生之和, 分帝王之操, 列小大之差者也」參照.

32) 勞思光, 「中國哲學史」(漢唐篇), 鄭仁在譯, 探究堂, p. 137. 參照.

목가·법가 그 어느 것도 아닌, 그것들을 통일적으로 결합시켜 성립된 회남자 자신의 사상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 밖에도 武內義雄 같은 사람은 向井哲夫가 ‘천문훈’을 비롯한 5편을 음양오행가에 포함시킨 것을 반대하여 ‘천문훈’과 ‘시척훈’의 2편만이 음양오행가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向井哲夫가 도가사상에 포함시킨 ‘제속훈’과 목가사상에 포함시킨 ‘수무훈’의 양편을 농가에 포함시켜야 한다³³⁾고 보는 등 상이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주장은 결국 각 장이 일가의 사상으로 주도적으로 진술되어 있다는 견해에 난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관점, 곧 각 장에 제가의 사상이 종합되고 있으며 그러한 각 장이 편명이 나타내 주는 주제들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수무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인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無爲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있고 명청하니 꿈쩍도 않고 당겨도 오지 않고 밀어도 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일체의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를 터득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였으나 나(淮南子)는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무릇 神農氏·堯임금·舜임금·禹임금·湯임금 같은 분들은 다 성인이며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행적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들이 다같이 방금 말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의 무위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다.”³⁴⁾

우리는 위의 문장에서 도가적 ‘무위’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회남자는 도가가 주장하는 ‘무위’의 개념의 본래적 의미를 전화하여 타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노자가 ‘어떠한 작위도 하지 않지만 도리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³⁵⁾라고 할 때의 ‘무위’개념은 ‘만물의 근원인 도에 합당하도록 행위함’ 또는 ‘인위적인 작위를 가하지 않음’이란 의미로 사용되며 그 결과도 자연의 원리의 정합성과 완벽성에 근거하여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회남자는 ‘무위’를 실행한 구체적인 예로써 옛 성인의 행적을 들고, 그들이 백성의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고심·분투하였음을 강조함으로써, ‘무위’개념을 ‘적극적으로 인위를 가함’ ‘열성적으로 노력함’이란 의미로 풀이

33) 義內武雄, 앞의 책, p.131. 參照.

34) 「淮南子」, 「修務訓」, 「或曰, 無爲者, 寂然無聲, 漠然不動, 引之不來, 推之不往, 如此者, 乃得道之像, 吾以爲不然, 嘗試問之矣, 若夫神農·堯·舜·禹·湯 可謂聖人乎, 有論者必不能廢, 以五聖觀之, 則莫得無爲明矣」參照.

35) 「老子道德經」, 제37장, 「道常無爲而無不爲」參照.

하고 있다. 이것은 도가적인 ‘무위’개념에다 유가적인 ‘성인’개념을 결합시킨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임금이 취할 태도는 다음과 같다. 무위자연을 본따라 지키고 묵묵히 교화·훈령하고 허무청정을 지키고 확고부동하며 모든 법도를 하나인 도에 일통시킨다…임금은 속으로 계략을 알고 있어도 직접 나서지 말고 신하로 하여금(임금의 뜻을) 알리고 지도를 하게 할 것이며…또한 추하다 아름답다 좋다 밋다 하는 감정표출도 하지 말 것이며 상벌을 자주 내리지도 말고 또한 기쁨이나 노여움도 함부로 보일 것이 아니다”.³⁶⁾

위의 문장의 전반부는 도가의 정치술을 언급하고 후반부는 법가의 정치술을 언급하고 있다. 즉 도가의 무위 개념을 말하면서 법가의 정치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도가와 법가의 정치술을 혼합하여 언급하는 것은 결국 회남자가 이상적인 통치술을 어느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특정한 사상으로 구성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예를 든다면, 본체론은 도가사상, 수양론은 유가사상, 경제론은 법가사상이라는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 하나의 장을 어느 특정한 사상에다 편입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이 밝혀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회남자가 제가의 사상을 결합했을 때 주도했던 통일적 의식은 무엇인가, 곧 회남자 사상의 특징 또는 문제의식은 단적으로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는 회남자의 철학사상에 있어서 두드러진 점으로 대략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회남자는 백성들의 현실생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성립된 제자백가의 사상들을 수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의 어진 임금은 백성들을 진실로 걱정하고 사랑하였다. 나라에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임금도 입맛을 잃었고 백성 중에 떠는 자가 있으면 거울에도 털옷을 입지 않았다”.³⁷⁾ “양식은 국민 생활의 바탕이고 국민은 나라의 바탕이고 나라는 임금된 자의 바탕이다”.³⁸⁾

둘째로 회남자는 현실생활을 중시하는 정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물제도가 백성들의 물질 및 정신생활과 부합되지 않아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개변되어야 한다고 보아 變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세상이 바뀌면 정사도 변하고 때가 옮겨지면 풍속도 변한다. 따라서 성인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을 잘 파악하고 법을 세우고 때에 맞추어 일을 처리한다”.³⁹⁾

36) 「淮南子」, 「主術訓」, 「人主之術, 處無爲之事, 而行不言之教, 清靜而不動, 一度而不搖…是故心知規, 而師傅諭導…不爲醜美好憎, 不爲賞罰喜怒」參照.

37) 「淮南子」, 「主術訓」, 「古之君人者, 其慘恒於民也, 國有饑者, 食不重味, 民有寒者, 而冬不被裘」參照.

38) 「淮南子」, 「主術訓」, 「食者民之本也, 民者國之本也, 國者君之本也」參照.

39) 「淮南子」, 「齊俗訓」, 「世異則事變, 時異則俗易, 故聖人論世而立法, 隨時而舉事」參照.

회남자의 변법정신은 근본적으로 사회의 실정에 부합하는 통치를 지향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백성이 천진순박한 시대에는 자유롭게 방임하는 정치(도가정치)를 시행하고, 그 뒤로 백성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통치자가 인격을 수양하고 매사에 술선수범함으로써 백성들을 교화(유가정치)시켜야 하며, 백성들이 더욱 타락하여 교화로써도 안될 경우에는 법을 공정하게 운용함(법가정치)으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옛날에는 백성들이 순진하고 후덕했으며 공산품도 견실하였다. 상인들은 소탈하고 정직했으며 여자들도 정숙하고 청정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모든 면에서 도덕이 더욱 쇠퇴하고 백성들의 기풍도 천박해졌다. 그렇거늘 옛날의 순박하고 후덕했던 때의 법을 가지고 오늘의 파탄나고 타락한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마치 말재갈이나 채찍없이 사나운 말을 몰고자 하는 것과도 같다. 옛날의 神農氏 때에는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였고, 堯임금이나 舜임금 때에는 법령을 제정하였으나 백성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일은 없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백성들이 창피도 모르고 치욕도 무시하며, 탐욕스럽게 취하면서도 수치도 모른다. 오늘의 이런 자들에게 신농시대의 정치도를 가지고 다스려보아야 아무런 소득도 없으며 틀림없이 혼란만 일어날 것이다.”⁴⁰⁾

회남자는 자신의 시대를 법에 의해서 통치해야 하는 시대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도가·유가·법가의 통치방식 사이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세 가지 방식이 모두 시세에 따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통치방식이라고 긍정한다. 그는 이러한 논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주만물의 근원이요 변화원리인 도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변화 또는 발전에 있음을 지적한다.⁴¹⁾

V. 연구방법론

대개 어떠한 철학사상이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그 체계의 광범위성과 조직성, 관심내용의 구체성과 효율성에 연유할 것으로 생각된다. 광범성과 조직성이란 관심분야에 대한 해답이 보다 포괄적인 체계에 의하여 지지되고 그러한 체계가 논리적이고 정합적임을 의미하며, 구체성과 효율성이란 그러한 체계가 일반인들의 관심사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해답이 적절하고 효율적임을 의미할 것이다.

40) 「淮南子」, 「汜論訓」, 「古者人醇工麤, 商樸女重, 是以政教易化, 風俗易移也, 今世德益衰, 民俗益薄, 欲以樸重之法, 治既弊之民, 是猶無鎗銜策鋁而御野馬也, 昔者神農無制今而民從, 唐虞有制今而無刑罰…逮至當今之世, 忍鉤而輕辱, 貧得而寡羞, 欲以神農之道治之, 則其亂必矣」參照.

41) 「淮南子」, 「齊俗訓」參照.

회남자의 경우를 보면 관심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先秦시대에 태동했던 제가의 철학사상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철학사상이 보다 폭넓게 해석되어 질 때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고 볼 때 회남자의 연구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회남자는 조직성과 엄밀성에 있어서는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성립되었고 제가의 사상이 폭넓게 수렴되고 있는데 그 원인의 일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학체계의 종합성과 통일성은 반드시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즉 보다 포괄적으로 종합되었다고 해서 일관성 또는 통일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회남자가 고래로부터 여러 사상가들에 의하여 잡가로 간주되어 온 것도 철학사상에 체계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결과가 아닌가 한다.⁴²⁾

회남자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회남자 철학사상의 본질적인 구조와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질적인 구조란 제가의 사상을 취합한 후에 형성된 논리적 구조이며, 이것은 이미 제가의 사상이 아닌 회남자 자신의 내적인 논리적 구조이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몇가지 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회남자의 철학사상은 제가의 사상을 종합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회남자 철학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회남자 사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회남자 철학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제가사상의 성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가사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세째, 제가사상이 종합된 결과로서 회남자 철학사상의 논리적 구조가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분석을 거쳐서 다시 종합하는 단계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회남자 철학사상 전체의 본질적 구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째, 회남자 철학사상의 현대적 가치와 의의를 드러내야 한다. 회남자 사상의 우수성과 효율성 및 모순성과 한계성이 분명히 구명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42) 班固, 앞의 책, p.1741 (班固는 「한서」 '예문지'에서 「회남」 '내편' 21편과 '외편' 39편을 처음으로 雜家에 편입시켰다.) 參照.

參 考 文 獻

- 「淮南子」, 漢文大系, 卷二十, 富山房, 1984.
- 「淮南子」, 李錫浩譯, 乙酉文化社, 1974.
- 「淮南子」, 張基謹譯, 新華社, 1983.
- 班固, 「漢書」, 景仁文化社.
- 傅樂成, 「中國通史」, 辛勝夏譯, 宇鍾社, 1985.
- 徐復觀, 「兩漢思想史」, 臺灣學生書局, 1984.
- 金春峰, 「漢代思想史」, 中國社會出版社, 1987.
- 陶建國, 「兩漢魏晉之道家思想」, 文律出版社, 1985.
- 勞思光, 「中國哲學史」(漢唐篇), 鄭仁在譯, 探究堂, 1987.
- 侯外廬, 「中國哲學史」(上), 양재혁역, 일월서각, 1988.
- 馮友蘭, 「中國哲學史料集」, 鄭仁在譯, 螢雪出版社, 1985.
- 黃秉國, 「老莊思想과 中國의 宗教」, 文潮社, 1987.
- 曹道衡, 「「淮南子」和 五經」, 「中國哲學史」, 復印報刊資料,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7., 12.
- 向井哲夫, 「「淮南子」と 墨家思想」, 日本中國學報, 第三十一集, 日本中國學會, 1979.